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166)(5/14/2022)

제 3 권 내적 위로

제 43 장 헛된 세상 지식을 경계함, 1 절

사 28:23 -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렘 26:13 -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시 147:10-11 - 10.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역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1.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느니라.

시 119:131-132 - 131.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므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132.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 아들이, 사람들이 하는 듣기 좋고 세련된 말들에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고전 4:20).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들을 경청하라. 나의 말들은 마음을 뜨겁게 하고 영혼에 빛을 비추어서 통회사복하게 만들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풍성한 위로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네 자신이 더 박식하게 보이거나 더 지혜롭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말씀”을 읽어서는 안 되고, 네 안에 있는 죄악들을 죽이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라. 네 안에 있는 죄악들을 죽이는 것이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지식을 얻는 것보다 네게 훨씬 더 유익하다.

**말씀과 해설:**

이 세상의 어떤 것이나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며 의지하는 성도가 주의해야 하는 여러가지 것들 중의 하나가 말의 문제이다. 여기서 말의 문제란, 내가 내뱉는 말의 문제 이전에 내가 듣는 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인간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시고 언어를 통하여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하는 능력과 함께 말을 듣는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을 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지만, 말을 듣는 것도 매우 조심해야 한다. 말을 듣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누구의 말, 그리고 무슨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된다.

(1) 성경은 인간의 말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명령한다. 이 명령은 성경에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말씀 중의 하나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할 말을 가르치시겠다고 하셨다. 출 4:12, 15 - 12.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15.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사 28:23 -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 성경의 인물들에게처럼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중요한 것은 성도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2)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순종하고 따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렘 26:13 -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청종”은 순종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복을 준비하던 여호수아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셨다. 수 1:7 -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말씀은 가나안 정벌 전쟁의 승리를 위한 조건, 그리고 더 나아가 삶에서의 형통의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성경은 인생의 승리가 나 자신의 능력, 힘, 그리고 인간적 여건이나 환경에 달렸다고 말씀하지 않는다. 전 9:11 -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시 147:10-11 - 10. 여호와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역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1. 여호와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느니라.

(3)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한다. 사 55:1-2 - 1.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아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를 원한다. 시 119:131-132 - 131.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므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132.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4)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은 깊이 기도한다. 기도는 나의 욕구를 아뢰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기도의 본질 중의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을 묵상하며 깊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는 홀로 산에 올라가 사십 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완전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였다. 모세는 금식을 동반한 깊은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을 위한 율법을 받은 것이다.

(5)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말씀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히 4:12 -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어 쪼개기까지 하며,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이러한 말씀의 활력을 가장 잘 묘사한 말씀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렘 1:9-10 - 9.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주었노라 10.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는 주의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승리한다.

세상이 최악 가운데 혼란과 무질서에 빠져들수록 주의 백성들은 우리의 삶의 원리와 원칙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찾고 구해야 하고,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해야 한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나 자신에게 역사하시며, 동시에 나를 통하여 나의 이웃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 역사하신다.

####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이 세상의 그 어떤 소리들 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진정한 영적 승리를 얻게 하옵소서.
2. 전염병과 전쟁의 고통 속에 있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 정의와 평화의 은혜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3.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아시아 지역 선교사님들(대만 정안진, 미얀마 정요엘, 채희철, 중국과 미국 정후란시스, 파키스탄 최아브라함)의 사역과 가정이 강력한 성령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